



6월

다섯째 주

가정예배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

찬양해요 찬송가 430장

기도해요 가족 중 한 명이 대표기도해요

말씀을 읽어요 누가복음 6:41-45

- 41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 42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 43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 44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짙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 45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말씀 이해하기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 교훈하고 계십니다. “눈 속에 있는 들보”와 “열매”의 비유입니다. 전자가 자신의 잘못이나 죄인인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에 관한 교훈을 준다면, 후자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교훈을 깨닫게 합니다.

이처럼 열매를 통하여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지어서 행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선한 행실을 열매로 맺게 되고 악한 마음은 악한 행실을 열매로 맺습니다. 특히 죄는 죄악을 열매로 맺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실체를 보여 줍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그의 내적인 변화 없이 외적인 행동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워봅시다.

좀 더 생각해보기

1 성경말씀에서 명령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천해야 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42절에서 무엇을 명령하고 계십니까?

먼저 네 눈 속에서 를 빼라

그 후에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를 빼리라

2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43절)?

못된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3 주로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의 을 통해 표현됩니다(45절).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 말실수를 해서 어려움에 처한 경험이나, 격려의 말 한마디를 통해 힘을 얻은 경험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봅시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으로 말함이니라

4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점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나 교훈이 되는 말씀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

기도해요

하나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보다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특별히 오늘은 저에게 형제를 격려하는 말을 할 수 있는 너그러움을 갖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